

# 서커스·청바지·레슬링...세대공감 총장축제

5일~9일 금남로 등 일대서  
동춘 서커스단·중기예단 공연  
레슬링·복싱 경기장 설치  
신서석로에 추억의 테마거리

'서커스, 청바지, 프로레슬링, 대학가요제, 고교장.'  
올해 열리는 제15회 '추억의 총장축제'(이하 총장축제)가 서커스 콘셉트를 처음으로 도입하며 7080 추억을 불러온다.  
광주시 동구는 총장축제 개막을 5일 남겨 놓고 최종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축제는 '추억, 세대 공감!'을 주제로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충장로·금남로·예술의거리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축제의 세대공감 소재는 서커스와 청바지로 정해졌다. 메인 콘셉트인 서커스는 개막식을 비롯한 축제 전반에 도입돼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동구는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동춘서커스단을 초청해 화려한 공연을 마련한다. 또 중국 광저우시 월수구 기예단도 초청해 한·중 서커스를 동시에 만날 수 있다.  
동춘서커스단 공연은 5·18민주광장에 설치되는 주무대에서 5일 열리는 개막식을 비롯한 7일 오후 3시, 8일 오후 3시에 볼 수 있다. 월수구 기예단은 6일 오후 7시 30분 금남로 제2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프로레슬링, 복싱 경기장도 들어선다. 실제 프로레슬링 단체인 PWF 소속 선수들이 7일 오후 4시 우리은행 앞 도로에 마련된 경기장에 오르고 캐스터와 해설자가

흥미를 더한다. 9일 오후 2시 같은 경기장에서는 동구체육회가 주최하고 복싱협회가 주관하는 '동구청장배 복싱대회'가 열린다.  
또 젊음과 자유의 상징인 청바지를 축제의 드레스코드로 정해 청바지 리폼경연대회, 청바지 페스티벌 등 참여프로그램도 준비했다.  
DJ다방, 문방구, 전파상 등 70·80년대 거리를 재현한 '추억의 테마거리'는 동부경찰서와 문화전당 사이에 자리한 신서석로 일원에 꾸며진다.  
축제 개막식은 10월 5일 오후 7시 5·18민주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추억의 마술쇼, 총장서커스 매직유랑단, 변경공연 등에 이어 김현정·현진영·김정민 등 추억의 라인업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이 가을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축제의 꽃 '총장퍼레이드'는 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수창초교에서 5·18민주광장까지 1.6km에 걸쳐 서커스 퍼레이드, 음악밴드, 치어리딩 등의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올해는 브라질 리우, 이탈리아 베네치아, 프랑스 니스 등 세계 3대 퍼레이드 모습도 감상할 수 있다.  
총장로 4·5가에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춘문화존'이 들어선다. 지역 상인들과 함께하는 일일호프를 비롯해 청년음악가 공연, 플라마켓 등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축제기간 중 구시청 일원에서는 아시아 푸드페스티벌이 진행된다. 다양한 문화공연은 물론 중국·일본·태국·대만 등 아시아 각국의 음식문화를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기회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지난 30일 총장축제 개막을 5일 앞두고 광주시 동구 금남공원에 집·꽃 형상 조형물이 설치돼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총장축제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금남로·충장로·예술의거리·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최한배 기자choi@kwangju.co.kr



## 시민권익위 매달 민원현장 찾는다

이시장·최위원장 함께  
각화초교 통학로 대책 모색

이용섭 광주시장과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이 매달 한 차례씩 광주시역의 민원 현장을 찾아 해법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시장과 최 위원장은 지난 28일 제1회 현장 경찰의 날을 북구 각화초등학교에서 갖고 위험한 통학로 문제 해결을 위해 신수정 광주시의원, 학부모, 교육청, 북구청 등과 함께 고민했다. <사진> 각화초교 통학로 문제는 광주 외곽에 무분별하게 고층아파트 인허가를 유발하면서 발생했다. 실제 각화초교 학교 내에는 2017년부터 총 2402세대의 신규아파트가 들어섰고, 2020년 이후에 2개 아파트가 더 들어설 예정이어서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주변 전답, 공터 등이 아파트로 개발됐으나, 인도가 없는 정문 하나로 주변 거주 학생들이 드나들 수밖에 없어 가스충전소, 공업 및 상업시설 등에 드나드는 차량이나 전선물로 인해 안전에 큰

위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후문 설치, 인도가 포함된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문제는 북구청이 39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날 학부모들은 "각화초교는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도 학내 진입로가 정문 1개소만 있고, 정문 앞에는 가스충전소가 있어 등하교 학생들이 늘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시장은 "내 아이가 이용하는 통학로라는 마음으로 본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기 위해 시민권익위원회를 출범시킨 만큼 앞으로도 매달 한 번씩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시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검토를 거쳐 통학로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노란신호등,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청풍마을·16개 지역업체와  
지오빌리지·지오파트너 협약

광주시는 지난 27일 청풍마을 무돌주막에서 청풍마을 및 16개 지역 업체와 지오빌리지 및 지오파트너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4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인증 이후 지역주민과 본격적인 협력사업을 위한 첫 단계로 마련됐다. 시는 청풍마을을 지질공원 특화마을인 지오빌리지(Geovillage)으로 지정했다. 지오빌리지는 앞으로 마을트레일 개발,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한편 주민들이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 '주민이 주인'이라는 지질공원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또 평촌도예공방, 무돌주막, 무돌토틀스토이 가구카페, 무돌생태공예 등 16개 지역업체를 지오파트너(Geopartner)로 지정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재개발·재건축 정보 공개 주택조합 잡음 없앤다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가동

광주지역에서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정보가 모두 공개된다.  
광주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10월부터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은 광주시가 민선7기 들어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광주다움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폐쇄적인 조합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갈등 해소와 조합원의 권익 보장, 알 권리 확보를 위해 구축됐다.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는 ▲정비사업 초기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업

성 분석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정비사업 추진 주체인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 운영하는 정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월별 자금의 입·출금내역 등 법적 공개대상 항목을 표준화된 서식으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조합 운영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 그동안 조합 운영진과 조합원들 간 소모적인 다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http://hreas.gwangju.go.kr>) 또는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http://www.gwangju.go.kr))의 '사이트 바로가기' 중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격 운영에 앞서 8월 말부터 시범운영

##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 추진

42명 조성단 실천과제 선정

광주시가 광주천의 생태를 복원하고, 주변 관광·문화자원과 엮어내는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정중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관계자는 물론 민간전문가 등 42명으로 조성단도 구성했다.  
시는 30일 "지난 12일 구성된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단'의 세부 실천과제를 검토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28일 가졌다"고 밝혔다.  
조성단은 생태하천복원분과와 연계관광 문화벨트분과로 나눠 각각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생태하천복원분과에서는 광주천의 수

질 개선을 위해 수질 직접 정화 시설, 분류식 하수관거, 유입 오염원 확인 등을, 수량확보를 위해 수질이 양호한 하천수 및 상수원수 공급방안 등을, 양동 복개상가 시민힐링 쉼터조성을 위한 복개구간 지하주차장 철거 및 대체부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계관광 문화벨트분과에서는 광주천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 야구장과 인근 복합 스포츠 공간 조성, 광주천 수변공간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 등을 다룰 예정이다.  
시는 조성단 운영과 병행해 광주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용역도 오는 11월 착수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